

보성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차(茶) 관련 교육자료 개발

농촌진흥청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격 추진



보성군은 최근 광주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차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추진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농업과학원

협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보성군과 농촌진흥청이 농업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했다. 앞으로 보성군은 연말까지 3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역의 교육자원과 연계해 중학교에서 활용 가능

한 농업유산 교육용 매뉴얼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농업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교육자료가 개발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김미희 과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으로서, 수많은 농업유산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농촌차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성=안규일 기자

'고흥에서 한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순조롭게 진행

고흥군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호평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1팀당 1일 5만원 한도로 숙박비를 지원하고, 고흥에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사업이다. 고흥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숙소인

팔영산 자연휴양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및 마을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 연휴도 펜션까지 3곳을 숙소로 지정하고, 팔영산 편백지유의 숲 테라피센터와 연계하여 여행 콘셉트를 '치유'와 '힐링'으로 정했다.

고흥군은 22팀 50여명 신청자들에게 고흥 관광 홍보 과제를 부여하고, 참가자들은 여행 중 실시간으로 SNS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후기를 올리면서 고흥의 매력을 효과적으

로 알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국립공원 팔영산과 나로도 봉래산의 웅장한 편백 숲이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 주고, 소록도와 나로우주센터, 거금도 해안일주도로 등의 관광명소와 함께 유자와 활어, 한우 등 싱싱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풍성하여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등 고흥의 맛과 멋을 즐기기에 한 달이 짧게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운영

여름방학 기간 동안 7개 프로그램 운영

여주시립도서관이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름방학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9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대상은 초등학생이다.

강좌는 3개 도서관에서 총 7개가 진행된다. 쌍봉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 1, 2반'이 열리고, 현암도서관에서

는 '그림책 하브루타'와 '낭독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환경도서관에서는 '생명과학교실 1, 2반', '토요생명탐구교실'이 문을 연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좌별 20명 내외로 수강생 140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에서 원하는 강좌



를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장과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상, 여주시장상을 수여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시, 출생아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5.6% 증가

광양시는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분야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6% 증가하는 쾌거를 거뒀다.

광양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신생아 양육비는 지원액을 2017

년 11월에 조례 개정으로 첫째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를 소득 기준 없이 표준 서비스 기간 이용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80만 원~1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시책으로 다

둥이를 둘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다둥이 출산장 행복쿠폰으로 광양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광양시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신신고 3년 이내인 신혼(예비)부부에 임신 관련 검사비용도 여자 17만 원, 남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덕연동 '오소오소 마을활력소' 개소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오소오소 마을활력소의 열림식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의 활동 공간 단장을 주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허석 순천시장, 서정진 순천시의회장, 이길훈 순천교육장, 문규준 시의원, 허유인 시의원, 김미연 시의원, 덕연동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지역주민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아고라 순천 공연으로 시작된 열림식은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1년 간 활력소 개소를 위해 애쓴 38명의 주민운영단과 청소년운영단이 모두 참석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활력소에 내놓은 전통 장아찌와 젠 등은 주민운영단이 직접 담은 것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유독 많았다. 이는 수의창출을 통한 마을활력소의 지속 가능한 자율운영의 가능성으로 비추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 곳 활력소가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더 나아가 마을의 새로운 활동이 시도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려 여러분과 소통하고 활력소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소오소 마을활력소는 순천교육지원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공유부엌과 공유 카페, 2층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와 다목적 공간, 돌봄방이 있다. 주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구례군은 최근 구례 5일시장에서 청년 버스커와 함께 군민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버스킹 캠페인은 그 동안 관 주도 캠페인 형태에서 벗어나 군민 스스로 교통안전문화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보행자 배려 우선의 교통법규 준수, 스마트폰 보행 금지, 차량속도 줄이기 등 군민 스스로가 먼저 교통안전에 동참할 수 있는 메시지를 길거리 음악 공연인 버스킹 공연 및 가두행진 캠페인과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보안관, 남도안 전학관, 구례경찰서 등 관려단체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구례를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만났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하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신진교통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관광택시 여름여행 후기 이벤트 진행

곡성군은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곡성관광택시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 연인, 친구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곡성관광택시는 '1000번째 고객맞이 이벤트'에 이어 이번에는 '여름 여행후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곡성관광택시를 이용하고 공식홈페이지에 포토후기를 작성하면 한 팀당 곡성심정상품권 2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관광택시의 요금에 3시간당 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요금의 1/3을 돌려받는 셈이다. 경품으로 받은 곡성심정상품권은

관내 500여개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관광택시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연계한 's-train&곡성관광택시'와 '오레일패스&곡성관광택시' 상품을 활용하면 기존 요금보다 25% 저렴한 4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곡성=김광희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